금주의 법구–〈아함경〉
의심은 분노의 근본 요인이며
서로의 생명을 해치는 칼날이고
서로의 마음을 괴롭히는 가시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311호 구독신청 (02)2004-8212 창간 26 1994~2020 (불기 2564년 음력 8월 14일) 2020년 9월 30일 수요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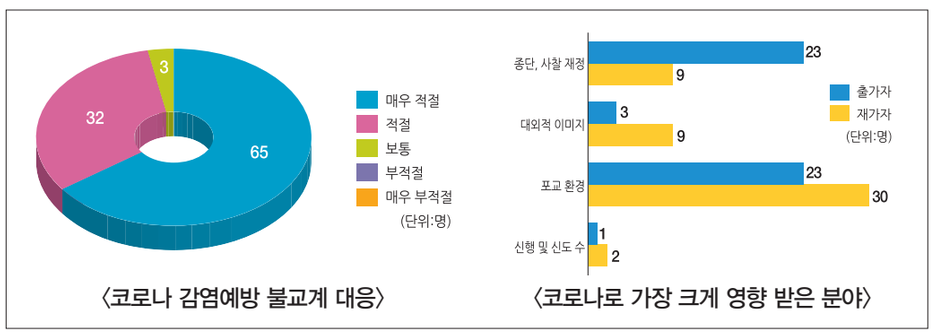


결사(結社) 한국불교의 중흥과 대중의 안녕을 발원하며 시작된 상월선원의 결사는 지난해 겨울 천막서 시작됐다. 차가운 천막의 힘겨움을 견디고 나와 태화산을 걸었고, 인도만행결사까지 아직 길은 멀다. 10월 7일 시작되는 자비순례를 앞두고 상월선원 대중은 매주 목요일에 새벽정진을 진행했다. 코로나 등으로 하 수상한 시절 길 위에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그것은 아마도 깨어 있겠다는 다짐일 것이다. 본지도 26년 전 역시 한국불교를 생각하고 대중의 평안을 위해 창간했다. 창간 26주년을 맞으며 다시 지령 1호 앞에 선다. 30주년, 100주년까지 아직 길은 멀다. 하 수상한 시절을 공부로 삼아 다시 새벽길에 선다. 현대불교신문도 이제 다시 결사다.
글=박재완 기자 · 사진=노덕현 기자

"코로나로 '포교환경 · 재정' 영향 컸다"

현대불교신문 창간 26주년 오피니언 리더 100인 설문

코로나 後 불교 평가 · 방향 조사
교계 언론 최초 '언택트 대담'도
코로나 불교계 대응 '긍정' 평가
가장 영향 받은 분야 '포교환경'
출가자 '법회 중계 · 수행' 중점
재가 '문화콘텐츠 · 법문' 원해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이하 코로나19) 확산으로 불교가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분야로 불교계 오피니언 리더들은 '포교환경'을 꼽았다. 또한 비대면 법회 · 신행서 주력할 분야로는 불교문화콘텐츠를 꼽았다. 다만, 세부적인 방향성에 대해서는 출 · 재가자는 인식 차이를 보였다.

본지는 창간 26주년을 맞아 '코로나19 이후 불교계 변화'를 주제로 9월 동안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부실장 · 교구본사 주지 · 중앙종회의원 · 전국비구니회 집행부 · 신도단체장 · 학자 등 불교계 오피니언 리더 100인(출가자 50인 · 재가자 50인)에게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또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인사 승가대학 학감 법장 스님,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 박재현 신대승네트워크 소장 등 전문가 3인과 함께 불교계 언론 최초로 언택트 대담을 진행했다.

설문에 답한 출 · 재가자 100인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이뤄진 불교계의 방역에 대해서는 대부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불교계의 감염예방 조치와 관련 응답자 중 65명이 '매우 적절했다', 32명이 '적절했다'고 평가했다. 3명만이 '보통이다'라고 답했다.

'부처님오신날 연기 및 연등축제 취소'에 대한 평가도 대체적으로 긍정적이었다. 응답자 중 95명(매우 적절 53명 · 적절 42명)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부적절했다는 평가도 3명이 있었다. 불교계 코로나 지원활동에 대한 평가 역시 응답자 중 93명(매우 적절 55명 · 적절 38명)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사회적 변화 적응에 대한 평가에서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매우 잘했다"고 응답한 출 · 재가자는 20명이었으며, "잘했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31명이었다. "보통이었다"는 평가는 39명이 내렸다. 10명은 "못했다"고 평가했다.

비대면 온라인 법회에 대한 설문은 출 · 재가자를 나눠 진행했다. 평소 '온라인 법회를 운영했냐'는 출가자를 대상으로 한 질문에 37명이 "하지 않았다"다고 응답했으며, 11명만이 "했다"고 답했다. 2명은 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부터는 14명이 늘어 25명이 온라인 법회를 운영했다. 재가자의 경우 "온라인 법회에 참여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50%(25명)이었다.

이번 설문에서 확인된 것은 방향성에 대한 출 · 재가자의 인식 차이다. 대표적인 것이 비대면 법회 · 신행 시 주력 분야를 묻는 질문이었다. 비대면 법회 · 신행에서 주력할 분야로 출 · 재가자는 공통적으로 '불교문화콘텐츠(32명)'를 꼽았다. 하지만 출 · 재가를 나눠 살펴보면 차이가 뚜렷했다. 출가자는 주요 법회 생중계(15명)와 명상 및 수행(13명)을 주력 분야로 꼽았으나, 재가자들은 불교문화콘텐츠(20명)와 스님 법문(10명)을 주력 분야로 선택했다. 이는 재가자가 원하는 방향과 출가자가 제시하는 방향성의 차이를 드러내는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이후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은 분야에 대해서는 출 · 재가자들은 공통으로 '포교환경(53명)'을 꼽았다. 종단 · 사찰 재정(32명), 대외적 이미지(12명), 신행 및 신도수(3명)가 뒤를 이었다. 하지만 출 · 재가자를 분류해 살펴보면 인식 차이가 컸다. 출가자는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은 분야로 종단 · 사찰 재정(23명)를 꼽았지만 재가자는 포교환경(30명)을 꼽았다.

코로나 종식 이후 비대면 신행활동 전망을 묻는 질문에는 "비대면과 대면 신행활동이 병행될 것"이라는 응답이 36명으로 가장 많았다. "비대면보다는 대면이 우세할 것"이라고 31명이 답했으며, "비대면이 우세로 할 것"이라는 응답도 21명으로 적지 않았다. "대면으로 회귀한다"고 전망한 응답자는 7명이었으며, "비대면으로 대체된다"는 응답자는 3명이었다. 설문참여자는 2명은 답하지 않았다.

1311호 INDEX

창간 특집 '코로나&불교' A2~3
불교 오피니언 리더 100인 설문 분석

전문가 3인 언택트 대담 A4~5



만다라 인터뷰 B1~2
이용태 한국명상총협회 경영위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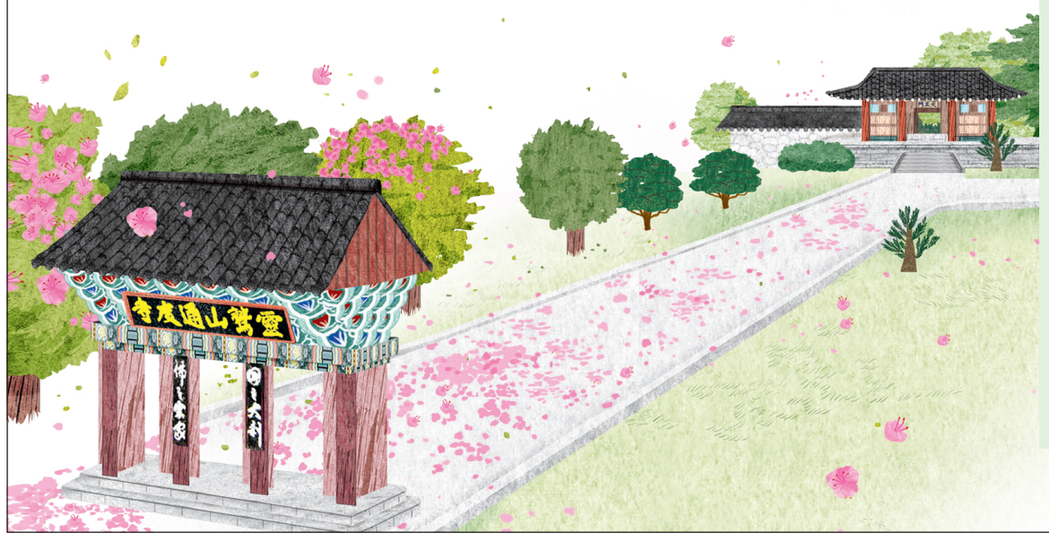


시방세계 B3
만행결사 새벽 정진 회향 현장

코로나19로 힘들지만
풍성한 한가위 보내세요.
다음 주 신문 쉽니다.

2020년도 전통산사문화재 활용사업

개산 1375주년
천년의 문화를 함께 나누다
개산대재 開山大齋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문화재 알기 체험행사는 비대면 행사로 전환합니다. 경내에서도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24일(토)

영축삼보 이운
일시 : 10월 24일 오전 9시 30분
장소 : 부도원 → 괘불대

괘불헌공
일시 : 10월 24일 오전 10시
장소 : 괘불대

영축문화공연
일시 : 10월 24일 오후 1시~3시
장소 : 무풍한송로 송수정 무대

문화 학술 세미나
일시 : 10월 24일 오후 2시
장소 : 해장보각





10월 25일(일)

영고재
일시 : 10월 25일 오전 10시
장소 : 해장보각

부도헌다례
일시 : 10월 25일 오후 2시
장소 : 부도원

개산대재 법요식
일시 : 10월 25일 오전 11시
장소 : 설법전

괘불탱화 특별전 및 자장율사 가사배견
일시 : 10월 25일 오후 1시 30분
장소 : 성보박물관





국화장엄
일시 : 9월 26일~10월 29일 / 장소 : 도량 일대

도자기전시
일시 : 9월 26~10월 10일 / 장소 : 명월료

「나도 작가다」 사진 전시
일시 : 10월 10일~25일 / 장소 : 감로당 앞막이

개산대재 문화재 활용사업
108퍼즐 / 컬러링북 나눔
배부일 : 10월 9일~11일, 17일~18일 / 5일간
장소 : 불이문, 삼성반월교 앞

「통도」표지 및 컬러링 전시
일시 : 9월 26일~ 10월 25일
장소 : 일주문부터 사천왕문

불지종가 국지대찰 영축총림 통도사 경남 양산시 하북면 통도사로 108 (지산리583) 전화 055)382-7182 팩스 055)382-7196